

## 6월부터 경부선 평일 버스전용차로 양재~오산에서 안성까지 연장

- 토요일·공휴일에 운영 중인 영동선 버스전용차로 신갈~호법 구간은 폐지
- 수도권 남부지역 출퇴근 편의 증진 및 영동선은 일반차로 정체개선 효과

-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6월 1일 토요일부터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조정·시행한다고 밝혔다.
  - 현재 평일 양재나들목에서 오산나들목까지 운영 중인 경부선 버스전용차로\*는 6월 3일 월요일부터 양재나들목에서 안성나들목 인근(58.1km 구간)까지 연장 시행되며,
    - \* 토요일·공휴일 경부선 버스전용차로는 양재나들목부터 신탄진나들목(134.1km) 유지
  - 현재 토요일·공휴일 신갈분기점부터 호법분기점까지 운영 중인 영동선 버스전용차로는 6월 1일 토요일부터 폐지한다.
- 그간 수도권 남부지역 출퇴근 버스 이용이 증가하면서 평일 경부선 버스전용차로의 연장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, 주말 영동선에 대해서는 일반차로 정체 등에 따른 버스전용차로 폐지 민원이 지속되었다.
  - 국토교통부는 버스교통량 등을 분석하고 버스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경부선은 안성나들목 인근까지 연장, 영동선은 폐지하기로 결정하고, 이후 「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 고시(경찰청)」 개정 및 차선도색, 표지정비 등\*을 완료했다.

\* (표지판) 철거, 이설, 신설 등 수정·보완 110개소, (차선도색) 영동선 26.9km 구간

-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이용자들이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5월 초부터 고속도로 전광판, 휴게소 현수막 등(5.10~)과 TV, 라디오 등 교통방송(5.16~)을 통해 버스전용차로 조정내용과 시행일을 안내하고 있으며, 조정일 이후에도 안내를 지속할 계획이다.
- 아울러,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대한 단속은 6월 1일 시행 이후 3개월간 계도 기간을 둘 예정(경찰청)이다.
- 국토교통부 주종완 도로국장은“이번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조정으로 경부선은 수도권 남부지역 출퇴근 개선, 영동선은 일반차로 확대에 따른 정체개선 효과 등 고속도로 이용자들의 편의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”면서,
- “앞으로도 주기적으로 관계기관과 함께 버스전용차로의 효과성을 분석하여 대중교통 활성화 취지에 맞는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찾아나갈 계획”이라 밝혔다.

담당 부서 (총괄)	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	책임자	과 장	지동선 (044-201-3909)
		담당자	사무관	안일찬 (044-201-3912)
담당 부서 (총괄)	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	책임자	과 장	이주열 (044-201-3823)
		담당자	사무관	정일웅 (044-201-3832)

**참고**

**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조정 ※대용량 파일 별첨**

